패널 토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용기

오늘 승효상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저는 건축에는 문외한이지만 대덕 연구단지에 27년을 살면서 오늘의 주제강연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연구단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건물을 만들고, 건물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말을 들으면서,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들의 건물을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학에 있어 창의성과 융합성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과연 이러한 정신이 담겨있는 건물이 몇이나 될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70년대의 획일화된 설계와 저렴한 시공비로 지어진 연구소의 건물들도 앞으로 renovation을 통하여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구단지는 개별적인 연구소들이 각각의 독립된 공간을 차지하면서 그냥 모여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Science town으로서, 과학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유기적인 연결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중심공간조차 없습니다. 일본의 쓰꾸바와 비교해 보아도 도시로서의 자생적인 기능이 전혀 없이 연구소들이 난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연구단지에는 몇 가지 건축과 관련된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공동관리아파트의 활용문제입니다. 최근 도시 건축의 몇 가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 의미를 지키는 건축, 글로벌 트랜드를 따르면서도 지역적 아이덴티티를 보존하는 건축,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되는 건축, 그리고 친환경적인 건축 등입니다. 공동관리아파트가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좋은 용도로 설계되어 활용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연구단지 내에 유일하게 문화공간으로 건축되었던 대덕문화센터(구 롯데호텔)가 목원대에 팔리면서 기능을 상실한 후 최근에는 그 곳에 고층의 건물이 들어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역시 오늘 강연을 해 주신 승효상교수님이 말하는 터무니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중앙과학관과 연계되어 활용되어왔던 엑스포 과학공원도 최근 대기업이 참여하여 대규모의 놀이 시설로 바뀌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연구단지 초엽에 있으면서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주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자칫 연구단지가 관광단지로 변하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연구단지가 우리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이끌어가기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창의와 융합의 중심이 되기 위한 science town으로 만들어가는 큰 그림의 계획이 아쉽습니다.